

## 美까지 나서 환율개입 한나절밖에 못간 '약발'

美 배선트 "韓경제 펀더멘털 견고"  
원화 약세 지속에 이례적 구두개입  
발언 직후 환율 14원 급락했지만  
장중 1470원 다시 돌파 '시장 요동'

한은, 고환율에 5연속 기준금리 동결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재무장관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두개입' 발언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이다.

배선트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구윤철 부총리를 만나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했고, 한국의 최근 시장 동향도 논의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언이 나온 직후 야간 거래(15일 오전 2시 종료)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4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오전 들어 다시 상승했고, 오후 8시 반 기준 1466.3원에 거래됐다. 전날 주간 거래와 비교하면 11거래일 만에 내리막을 들어 처음 하락 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입 효과는 한나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고환율을 우려하며 5년



속 금리 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이 고강도 발인과 금리 동결로 동시다발적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를 재돌파하며 고(高)환율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단기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 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면 금융사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 외환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동시다발적 대응에도 원-달러 환율은 이날 주간 거래에서 장중 1472.4원까지 올랐다. 투자자들이 당국 개입에 따른 환율 하락을 추세적 반전이 아닌,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동원돼야 한다"며 "해의 자급이 한국으로 유입될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 · 홍석호 기자  
▶A3면에 관련기사

## 트럼프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 90일내 협상"

반도체 전반 관세 확대 '포고문' 발표  
美경유 中수출 AI칩에 25% 부과  
새 반도체 협상도 예고... 'K칩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출용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반도체 전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또다시 반도체 협상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기업들도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합중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파생 제품의 수입 조정'이란 제목의 포고문을 내고 "해외 공급망 의존은 중대한 경제적 국가 안보적 위험"이라며 광범위한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또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해의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라고 지시하며 "90일 내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 4월 14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국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했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만 명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포고문에 담긴 또 다른 조치는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엔비디아의 AI 칩인 'H200' 등의 중국 수출길을 터주는 대신 미국에 세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뉴욕=임우선 특파원  
▶A2면에 관련기사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선정한 '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을 마친 뒤 상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부상 치료 중인 문강혁 경장의 대리 수상자인 고강석 경감, 김정주 경사, 강병모 경장, 고 이상영 소방위의 아버지 이대중 씨, 김현규 소방장, 뒷줄 왼쪽부터 김부진 경감, 사공동 중령, 배영우 상사, 이주희 소방경, 최근석 경감, 최기훈 경위.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묵묵한 제복의 헌신, 마음에 새깁니다

MIU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  
동아일보-채널A 제정  
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

"극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움직였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믿고 의지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병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경장(34)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지난해 3월 경

북 대형 산불이 영덕군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번졌을 때 동료들과 함께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강 경장은 동료들과 육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려 했지만, 도로까지 번진 화염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 소형 구조정을 타고 해안 방파제로 접근해 주민 33명을 구조했다. 강 경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마을로 들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 등 28명의 주민을 추가로 구했다. 그는 "산불 당시 고립된 주민들의 아우성과 눈빛이 아직도 선해서 침사리 잠들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구조할 준비가 돼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강 경장은 2020년 임관한 뒤 5년 7개월 동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선박 좌초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명 구조와 화재 대응,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헌신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군 진북항 인근 해안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도 수중 3.5m 지점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올해는 대상 1명, 제복상 6명, 위민경찰관상 1명, 위민소방관상 2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1명이 상을 받았다. 권구용 9dragon@donga.com · 천종현 기자  
▶A8면에 관련기사

## "재심 청구하라" 한동훈 제명 명분 쌓는 장동혁... 국회선 단식도

韓, 재심 절차 대신 법적대응 예고  
張,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촉구 단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소명 기회를 주겠다"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일단 보류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결정하면서 당내에서 '삼야 날치기 제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심은 윤리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25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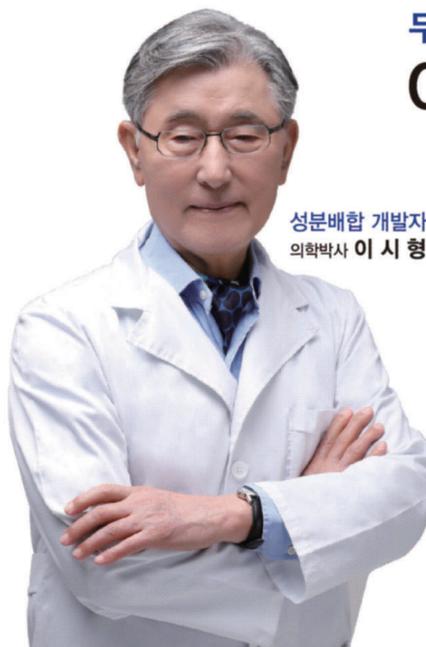
다만 장 대표는 "당사자가 직접 소명해주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소명하지 않으면 제명 징계가 유지될 것임을 내비친 것.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 대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분열은 자멸"이라며 장 대표의 징계 철회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의혹 특검 등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진우 기자 easy@donga.com  
▶A5면에 관련기사



성분배합 개발자  
의학박사 이시형

### 두뇌 건강을 위해 정신의학 박사가 직접 설계한

## 이시형 박사의 두뇌엔 PS

원료 선정부터 직접 따져 꼼꼼하게 설계한  
**이시형 박사의 두뇌엔 PS로 두뇌건강을 챙기세요!**

식약처 인정, 2중 복합기능성 원료  
**포스파티딜세린 300mg**

•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인 순도 70%의 포스파티딜세린 원료를 사용  
**맛있게 먹는 하루 1포 두뇌건강!**  
두뇌건강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 **이런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
- 깜박깜박 물건의 위치가 생각나지 않으신 분
- 나이가 들어 두뇌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 인지능력 개선이 필요하신 분
- 나이가 들면서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시는 분
- 핸드폰, 차키 등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시는 분
- 대화 도중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답답하신 분

**300mg**

포스파티딜세린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00%**

1일 영양성분  
8mg 기준치 대비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세트(4박스/2개월분)  
**139,600원 → 69,800원**  
[2g x 15포 = 30g] x 4박스(2개월분)

2세트(8박스/4개월분)  
**1만원 추가할인 129,600원**  
[2g x 15포 = 30g] x 8박스(4개월분)

전국무료전화 24시간 주문상담 **080-714-7000**

[www.mitzvah.co.kr](http://www.mitzvah.co.kr)

각종 신용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주)홍소핑코리아 전국 어디든지 무료배송